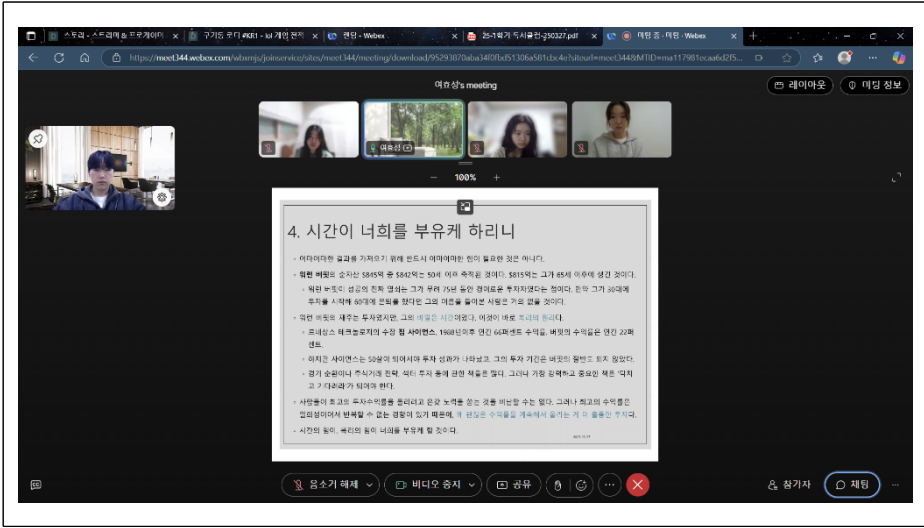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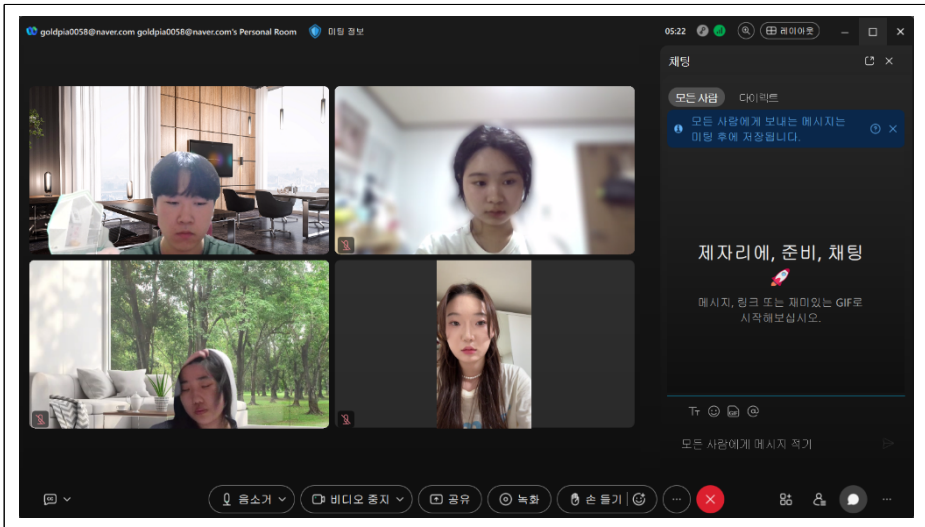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돈의 심리학

	일시	3 월 27 일 20 : 00 온라인 Webex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상원(1931215) - 팀장	O
		김진주(2213050)	O
		김희은(2553052)	O
		신채윤(2531157)	O
	진도	도서명: 돈의 심리학	진도페이지: p. 11 ~ p. 115
	1주차		
	토론 내용	[박상원, 김희은, 여효성 교수님, 신채윤, 김진주] 첫 모임이니만큼 교수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첫 회차이니 읽어온 범위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보다 이번 모임에 대해 팀원 각자의 지원하게 된 계기와 함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각 장에 대해 중요 문장 및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1장의 핵심 내용은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모두가 이 게임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2장은 '행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리스크 또한 존재한다. 이 리스크는 당신의 스토리를 단순히 역전시킨다.', 3장 '행복을 지키기 위해선 충분함을 알아야 한다.' 4장 '돈을 버는 방법은 수익률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5장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남는 것이다.' 6장 '이길 땐 크게 이기고, 질 땐 작게 지는 것이다. 크게 이기는 순간에 집중해야한다.' 7장 '돈이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 8장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9장 '보여주기 위해 쓰는 돈이야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10장 '저축을 늘리는 확실한 방법은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를 설명해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각자의 지원하게 된 계기를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박상원)같은 경우 트랙과 관련이 있고 복학하기 전 논술학원에서 문학과 비문학을 읽고 선생님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 경험을 이번 모임을 통해 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희은님은 평소에 책을 읽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좋아하며, 경제와 심리 모두 관심이 가는 분야라 지원하였고, 신채윤님은 평소 경제, 경영에 관심이 많았지만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을 하던 중 때마침 독서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이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경제와 심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싶어 지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주님은 돈에 대해 관심은 없지만 심리학을 좋아해서 돈과 심리학은 어떤 연관이 있을지 궁금해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기를 말하는 것을 끝으로 1회차 모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일시	5 월 3 일 17 : 00 온라인 Webex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상원(1931215) - 팀장	O
		김진주(2213050)	O
		김희은(2553052)	O
		신채윤(2531157)	O
		-	-
	진도	도서명: 돈의 심리학	진도페이지: p. 119 ~ p. 181
	토론 내용	[좌측부터 박상원, 신채윤, 김희은, 김진주] 이번 시간에는 6장부터 10장까지 읽고 개인마다 인상 깊었던 문장이나 내용을 말하고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공감하거나 대조되는 등 각자의 생각들도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박상원)같은 경우 '아무리 바라던 직업일지라도 이에 대한 통제권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 있다'라는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진정한 부는 통제권을 갖춰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비슷하게 통제권을 갖출 수 없는 분야보단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희은님의 인상깊었던 내용은 '어떤 일에서든 유연성을 지닌다면 한 가지에 모든 수단을 쏟아 낼 이유도 없고, 다양한 선택지를 찾아나가면서 비교적 자유롭고 신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 너무 틀에 갇히지 않게 여러가지 일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느낀점을 말해주셨습니다. 신채윤님과 김진주님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 비쳤지만 저는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취업을 예로 들며, '자격증을 준비함에 다른 자격증을 이수할 방법도 있지만, 그럼에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격증이 있다. 때문에 한 가지 일에 몰두해야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고, 김희은님도 제 의견에 대해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채윤님의 인상깊었던 점은 '돈이 있어야 미래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였습니다. 이 문장 자체로 공감이 갔으며,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여유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유 자금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행복하기 위해 돈이 제일 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여유로울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동일한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김진주님은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라는 저자의 말에서 의문이 들게 되었다고 말해주셨습니다. 물건을 사는 행동이 무조건 사치를 위한 행위로 단정 짓는 것 같아서 납득이 쉽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수긍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화장품을 예로 들어, 필수품은 아니어도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에 따른 행복을 느낄 수 있기에 사치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며, 과소비가 아닌 적당한 소비는 필요하다고 종합적인 의견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일시	5 월 18 일 20 : 00 온라인 Webex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상원(1931215) - 팀장	O
		김진주(2213050)	O
		김희은(2553052)	O
신채윤(2531157)		O	
	-	-	
진도	도서명: 돈의 심리학	진도페이지: p. 185 ~ p. 265	
3주차	토론 내용	 [좌측부터 박상원, 신채윤, 김희은, 김진주] 이번 모임은 11장부터 15장까지 읽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진주님의 인상깊었던 내용으로는 세상은 원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너무 자책하기보단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중 "세상에는 놀랄 일이 생긴다"는 문구가 가장 인상 깊었으며,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예상 못 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 같아서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저(박상원)는 '13장 안전마진'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중 실수의 여지를 평가절하하고 오인한다는 문장을 읽고 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그럼에도 실수를 하게 되면 순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매우 당황했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실수를 한다는 것과 그 실수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자주 들었지만 정작 저 자신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행동한 결과 어떤 상황이 닥쳤을 경우 이에 대한 순발력 또는 대응이 약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실수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의견을 내었습니다. 신채윤님은 "투자에서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다"라는 문장이 가장 인상깊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투자에서의 불확실성을 피해야 할 '처벌'로만 생각하였는데 이 문장을 통해 변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적금 말고는 돈을 따로 모으지도 않고 있었고 특히 주식은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시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적은 돈으로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졌다. 리스크를 감정적으로 피하기보다, 이해하고 감당하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해주셨습니다. 김희은님은 "'미래의 나'를 '과거의 나'의 포로로 만든다."라는 문구가 인상깊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의 지표라고 칭할 수 있는 돈 이외에도, 살아가면서 어떤 분야에서든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과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과거를 절대적인 지침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걸 새로이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선택해야겠다고 의견을 내주었습니다.	

4주차	일시	5 월 22 일 19 : 40 온라인 Teams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상원(1931215) - 팀장	O
		김진주(2213050)	O
		김희은(2553052)	O
		신채윤(2531157)	O
		-	-
	진도	도서명: 돈의 심리학	진도페이지: p. 269 ~ p. 365
	토론 내용	[좌측부터 여효성교수님, 김희은, 김진주, 박상원, 신채윤(캠 오류로 인해 따로 받았습시다)] 첫 번째 모임과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교수님께서 19장과 20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주셨고, 참여 학생들은 각자 이 활동에 인상깊었던 점을 순차적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이 부분은 밑에 활동 후기에 적는게 좋을 것 같아 여기에 적지 않았습시다). 19장의 내용으로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자존심은 줄이고 부는 늘려야하며,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사지 않을 때 부가 만들어진다.', '밤잠을 설치지 않을 방법을 택해야 한다. 내가 안심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은 모든 금융 의사결정에서 최고의 이정표다.', '시간을 보는 눈을 넓혀라.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시간이다. 시간은 작은 것을 크게 키우고, 큰 실수를 약화시킨다.', '포트폴리오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라. 많은 것이 잘못되더라도 개의치 마라. 왜냐하면 소수의 작은것들이 결과의 대부분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투자나 비즈니스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하는데 돈을 써라. 당신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원하는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은 돈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남에게 더 친절하고 자신에게 덜 요란해져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열광하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다. 사람들의 존경은 번쩍이는 시계가 아니라 친절과 겸손을 통해서 얻어진다.', '저축하라. 그냥 저축하라.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성공을 위한 비용은 기꺼이 지불하라.', '실수의 여지에 항상 대비하라. 실수의 여지에 대비하는 것은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덕분에 파산하지않고, 계임을 이어나갈수만 있다면 큰 값어치가 있다.', '장기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극단적 선택은 피하라. 금융과 투자에 관한 과거결정이 극단적이면, 당신이 후회 할 가능성도 커진다.', '리스크를 줄여하라. 사람들의 예측능력은 형편없다. 또 결과에 큰영향을 미치는 대형사건은 느닷없이 일어난다. 시간이 지나면 제 값을 할 것이다.'와 같이 정리해주셨습니다. 20장에서는 "실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 양식을 유지할 때의 두 번째 혜택은 뒤쳐지면 안된다는 끝없는 심리적 압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극적으로 주식을 고르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 평균을 능가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나는 관점을 바꿨고 지금 보유한 주식은 모두 '저비용 인덱스 펀드'다.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투자해가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을것이다."와 같이 훑어보았습니다.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박상원 (1931215)	이 책을 읽기 전까진 돈에 대해 표면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사람의 심리와 돈을 엮어서 다양한 예시들을 토대로 지혜를 알려주는 이 책은 나의 인생에서 목적지를 빠르게 가기 위한 환승을 하게 된 계기인 것 같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이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은 내가 한 방향으로만 일정하게 줄기를 뺏는 과정에서 나뭇가지와 같이 다양한 방향으로 뺏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나중에 꽃을 피우기 위한 디딤돌이 된 것 같다.
	2	김진주 (2213050)	돈의 심리학 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우리는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겠다고 약속하는, 권위 있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는 구절이었다. 이 문장을 통해 나는 우리가 불확실한 현실을 견디기 위해 얼마나 쉽게 ‘확실했 보이는 말’에 기대는지를 느꼈다. 돈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서도 불안을 피하려는 본능은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려는 태도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3	김희은 (2553052)	돈에 대해 워낙 무지한 터라 돈을 다루는 시야를 트이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돈을 대할 때 지녀야 하는 마음가짐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돈에 대한 관념과 편견을 설명해 줘서 유익했다. 무엇보다도 돈의 가치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인상 깊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	신채운 (2531157)	이 책은 돈을 다루는 기술보다, 돈을 바라보는 태도와 사람의 심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라 생각했고 읽을수록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 초반에는 ‘돈을 벌기 위한 실용 팁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나는 왜 돈 앞에서 이렇게 불안해질까?”, “왜 남들과 비교하게 될까?”, “왜 투자가 어렵게 느껴졌을까?”와 같이 심리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되어 예상과는 다른 방향이었지만 돈에 대한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되어 좋았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돈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철학을 세우는 여정이었고 이런 독서모임을 통해 다른 분들의 생각과 시선을 들을 수 있어서 더 풍성한 경험이었다.
	5	성명 (학번)	